

‘인명 피해 방지’ 광주천 진출입 차단막 ‘괴물폭우’때 미작동

남구, 작년 말 부동교 등 5곳에 설치

지난달 23일 이후 보수 공사 시작

“사고 없었지만…” 안전불감증 지적

광주 남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광주천 진·출입로에 차단막을 설치했으나, 최근 ‘괴물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해당 차단막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천 일원 광주대교, 광주교, 중앙대교(좌·우), 부동교 등 5곳에 진·출입로 원격통제 차단막을 설치했다.

해당 설비는 호우특보 발효 시 광주천 진·출입로 통제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관제 시설에서 하천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면 원격통제 시스템을 통해 차단막을 켜는 구조다.

총 1억7천240여만원이 투입된 원격통제 차단막은 올해 1월8일부터 가동됐다.

그러나 남구가 지난달 23일부터 작동을 중단시킨 이후 5곳의 차단막은 누구나 언제든지 광주천 보행로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줄곧 켜져 있는 상태다. 이는 7월 초 일부 시민이 차단막



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대교에서 작업자들이 광주천 진·출입로 차단막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전기 공사를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을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보다 면밀한 관측을 위해 스피커와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조치라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추가 설치로 늘어날 시설물 하중을 견

디기 위한 기초부 보강 작업이 지난 8일에는 끝났고 스피커와 CCTV 부착을 위한 지주 재설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차단막은 이날까지도 가동 중단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30시간 만에 197.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4·5일에도 진·출입로가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

광주의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이 326.4mm인 점

을 고려하면 보름치 이상의 비가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내린 것인데, 당시 이로 인해 광주 곳곳에는 홍수 특보가 내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7월 괴물 폭우 당시 광주에서 급류에 휘말려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개방 상태를 유지했다는 대목에서 ‘안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림동 주민 김모(52)씨는 “비가 많이 오면 광주천이 넘칠까 걱정돼 살펴보는 데, 진입 방지 테이프가 있어도 뚫고 들어가는 시민들을 자주 봤다”며 “일년 내내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비가 자주 내리는 이 시기에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종혁 남구의원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들이 차단막을 넘어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했어야 한다”며 “많은 비가 예상된 상황에서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 행정의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문제 인지가 늦은 부분은 있으나 차단막을 켜는 후에는 예전처럼 임시로 안전띠를 돌려두긴 했다”며 “콘크리트 양생은 마쳤지만 비로 인해 전기 설비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주 내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광주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또 ‘무산’

市, 삼도동행정복지센터서

지난 6월 파행 이후 1달여만

동 주민·함평군민 계단 점거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광산구 삼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삼도동 주민과 함평군민들의 항의로 결국 열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1차 주민설명회 파행 이후 마련된 두 번째 자리로,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선정된 삼거동 일대의 환경 등을 분석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다. 설명회 이후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고시한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주민들이 “소각장 결사 반대”를 외치며 계단과 통행로를 가로막았다.

삼도소각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장 전입 의혹으로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함평군민들로 구성된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저지 함평군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뒤 설명회장에 합류해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광주시 관계자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 관계자들은 설명회장 입장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됨에 따라 광주시는 공고 등 대체 절차 시행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에 대비해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금은방서 목걸이 훔쳐 달아난 10대 ‘덜미’

손님으로 위장해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A(14)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24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

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이

건넨 목걸이를 살펴보다가 도주,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로 이동한 뒤 현지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대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과정에서 공범 여부와 함께 귀금속을 매입한 업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옥근 기자

서구, ‘당원 모집·갑질’ 장애인복지관 강력 처벌

감사 결과 일부 의혹 확인

광주 서구가 당원 모집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관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시민단체 ‘광주복지공감플러스’에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투서가 접수됐다.

해당 투서에는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강요하고 직장 내 갑질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퇴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복지관 임직원, 퇴직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7건 중 3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정치인 당원 모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특정 정치인에게 명단을 전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무국장의 직장 내 갑질로 직원들이 집단 퇴사했다는 다수의 진술과 복지관장이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보조금 횡령, 부정 사용, 불법 채용 정탁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

가 부족해 향후 신빙성 있는 제보나 증거가 확보되면 제소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민간 위탁사업의위원회를 열어 위수탁 계약 해지, 민간 위탁사업 참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갑질 가해자로 분류된 관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분리 조치 등을 복지관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출생 미등록’ 男兒 사망케 한 부모 구속

목포에서 출산한 2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20대)씨와 B(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이들은 목포 한 숙박업소에서 키우던 생후 2개월 무렵 남아를 죽게하고 시신을 보듬어 간직하던 혐의로 입건됐다.

/안재영 기자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